신촌 봉원사 문제 '일단락'

조계종·태고종 '법원 조정안 수용' 입장

"자비 화합 실천 모습 보이게 됐다" 기대

1950~60년대 정화불사 이후 조계종과 태고종이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신촌 봉원사'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될 전망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신촌봉원사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성직스님)는 지난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3차 회의를 열고 "지난 1월28일 서울고등법원 제20민사부(재판장 지대운)의 조정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고법은 "92필지 60,575㎡(1만8324평)를 조계종 소유로, 99필지 130,511㎡(3만9480평)를 태고종 소유로 한다"고 강제 조정했다. 이 조정안에서 재판부는 "봉원사 경내·외 소유 토지에 대해 원고 및 피고 조계종은 사찰 수행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와 "원고 및 피고 조계종은 부처님의 삼보정재 유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봉원사 경내·외 소유 토지에 대해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 각자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법원의 조정안은 이해 당사자 양측이 모두 수용할 경우 확정되며,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하면 재판으로 이어지며, 불복한 쪽이 불리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 성직스님은 "조정안에 모두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양보해야 합의가 가능하다"면서 "총무원장 스님 취임이후 '소통과 화합'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조정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특별위원회 소속 스님들은 정범스님의 '소수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는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이튿날 종무회의에서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인 특위 입장을 존중해 수용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태고종도 법원 조정안을 사실상 수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스님도 지난 1월27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조계종과 태고종이 신촌 봉원사 문제에 대해 사실상 합의를 했다"면서 "두 종단이 공식입장을 곧 밝힐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특위가 끝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위원장 성직스님은 "이번 신촌봉원사 문제 합의를 계기로 조계종과 태고종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종단에서 임명한 신촌 봉원사 주지 법안스님은 "2005년 5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봉원사 문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감회가 크다"면서 "불교가 대사회적으로 자비와 화합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법안스님은 "태고종도 이번 조정안을 수용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안다"면서 신촌 봉원사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바라봤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성직스님,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스님, 재무부장 상운스님, 중앙종회의원 성효스님, 범해스님, 정범스님, 운달스님, 신촌 봉원사 주지 법안스님이 참석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강희락 경찰청장이 지난 9일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 지난달 발생한 경찰관의 김포 용화사 주지 지관스님 폭행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불미스런 일로 심려 끼쳐 죄송"

강희락 청장, 총무원장 자승스님 예방

경찰관 지관스님 폭행 사건 '공식사과'

강희락 경찰청장이 최근 발생한 경찰관의 지관스님(김포 용화사 주지) 폭행과 관련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사과했다.

강희락 청장은 지난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피해 당사자가 (가해자들을) 용서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와 종단도 본인의 뜻을 존중한다"며 경찰청장의 사과를 수용했다. 이날 총무원장 스님은 "시민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폭행 사건이 스님에게 일어났다"며 유감을 표했다.

지관스님도 지난 3일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그들 모두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인 나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다"면서 "어떤 처벌이나 징계도 원치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관의 지관스님 폭행사건은 경찰청장의 사과를 계기로 사실상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수 기자

종단협 사무국장 강하스님 임명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국장에 강하스님(부산 청련암·사진)이 임명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9일 사무국장에 강하스님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 수여식에서 자승스님은 "다른 종단 스님들을 잘 모시고, 의견을 잘 수렴하면서 사무국장 소임을 보라"면서 "회원 종단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종단협 사무국장 강하스님은 "회장 스님의 뜻을 잘 받들어 사무국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종단협 사무국장 강하스님은 1991년 4월 벽파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95년 11월 일타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육군훈련소 법당신축 탄력"

불교신문-군종교구 업무협약 체결

'군불교 활성화' 5년째 공동캠페인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자광스님)와 불교신문(사장 선묵스님)이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았다. 군종교구장 자광스님과 불교신문 사장 선묵스님은 지난 5일 본사 사장실에서 육군훈련소 법당 신축불사 모연 등을 주요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선묵스님은 이 자리에서 "종단 기관지로서 군불교 발전에 힘을 보태고자 이번 자리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기획기사, 공동캠페인 등 군종교구와 불교신문이 적극 협력해 군포교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자광스님은 "군종교구 출범부터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불교신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 교구 중점사업인 육군훈련소 법당 신축불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따라 군종교구와 불교신문은 지난해에 이어 올 한해도 '육군훈련소 신축법당 공동캠페인', '전국 군사찰과 내무반에 불교신문 보내기 운동' 등 군포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불교신문은 지난 2006년 3월 군종교구와 업무협약을 맺은 이래 올해로 5년째 지면에 매주 1회 '모든 내무반에 법향을' 주제로 한 기획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발달장애 국제 컨퍼런스' 열린 선운사

"지속적 관심…템플스테이 지원"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독립생활을 위한 중등 이후의 교육과 취업옹호를 위한 한·미 국제컨퍼런스'가 지난 6일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One of Us Foundation), TIL전환교육연구소, 김춘진 국회의원 등이 공동개최한 이날 컨퍼런스는 특수교사와 장애인 부모, 장애인단체 활동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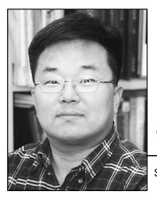
선운사는 이번 발달장애 국제컨퍼런스 개최에 이어 한국과 미국의 발달장애인과 지적 장애인 등 장애인을 초청한 템플스테이를 지속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선운사 주지 법만스님은 환영사에서 "복지의 사각지대인 정신발달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매우 열악한 만큼 이에 대한 불교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선운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템플스테이를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래훈 전북지사장 see2222@ibulgyo.com

현장에서

총무원장 스님의 방북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평생을 고통의 현장에서 행복의 길을 일러주신 부처님의 삶을 본받아 소통과 화합은 현장에서 실천해야 해결된다는 신념으로 오늘 방북의 길에 오릅니다." 지난 1월30일 평양 방문길에 나선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출국에 앞서 낭독한 발원문의 일부분이다. 서해에서 남북 양측이 포사격을 교환하는 등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나선 방북이기에 총무원장 스님의 표정에는 결연함 마저 느껴졌다.

그동안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이 북한을 방문한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다. 1998년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후 고산스님, 법장스님, 지관스님 등 역대 총무원장 스님들이 신계사를 다녀왔다. 법장스님과 지관스님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명예대표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으며, 정대스님은 2002년 12월에 평양에서 당시 박태화 조불련 위원장과 신계사 복원 의향합의 각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역대 총무원장 스님의 북한 방문은 '남북통일'이란 민족의 숙원을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에 평양을 방문한 자승스님은 총무원장 자격으로 '단독 일정'을 소화했다는 점에서 남북 불교교류의 진일보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남북이 서해에서 무력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이뤄진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평양방문은 막힐 대로 막힌 남북의 벽을 허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교계 안팎에서는 "침체된 남북 관계를 반전시키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숙제도 있다. 총무원장 스님과 평양방문단이 북측과 합의한 3개항, 그리고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 6개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는 일이다. 그 첫 단추가 금강산 신계사 순례이다. 지난 2008년 피격 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의 재개 가능성까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8산사 순례기도회는 통일부에 방북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다.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방북신청을 받아 들여야 할 것이고, 북측도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낸 남북 불교계의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큰 틀에서 해결해야 남북교류의 '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조언을 남북 당국자들이 귀담아 듣기를 바란다.

삼국유사를 저술한 일연선사의 혼이 살아숨쉬는 민족성지 인 각 사

www.ingaksa.org 인터넷검색 인각사

인각사 鹿苑寺

복원불사와 소원성취를 위한 천일관음기도 봉행

2차 100일 기도 : 2010년 1월 26일~5월 5일

인각사는 보각국사 일연스님께서 「삼국유사」를 저술한 민족문화유산의 성지입니다. 민족정신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쓰신 「삼국유사」는 우리 겨레의 소중한 자산이 되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이루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정차 이 나라를 계승 발전시키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더할나위 없는 귀중한 정신문화의 수련장이 되는데 「삼국유사 저술성지 인각사」만큼 중요한 곳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18여년동안 학술적연구를 위한 발굴에 치중한 나머지 인각사는 쓸만한 전각 한동없이 사막과도 같은 황량한 모습으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에 인각사에서는 복원불사와 소원성취를 위한 천일관음기도를 지난해(2009년) 10월 18일부터 봉행하고 있습니다. 제1차 100일 기도를 2009년 10월18일부터 2010년 1월 25일까지 원만히 봉행하였습니다. 기도기간 중 인각사 복원불사 계획시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힘입어 제2차 100일 기도를 2010년 1월 26일부터 2010년 5월 5일까지 봉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불자여러분의 가정에 다복(多福)과 건강이 깃드시길 부처님께 발원하는 동시에 저마다의 일상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성취하도록 간절하게 축원하고 있으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주지겸 기도법사 도 권 합장

◈ 천일기도 일정 ◈

제 1차 100일 기도	2009년 10월 18일	~	2010년 1월 25일
제 2차 100일 기도	2010년 1월 26일	~	2010년 5월 5일
제 3차 100일 기도	2010년 5월 6일	~	2010년 8월 13일
제 4차 100일 기도	2010년 8월 14일	~	2010년 11월 21일
제 5차 100일 기도	2010년 11월 22일	~	2011년 3월 1일
제 6차 100일 기도	2011년 3월 2일	~	2011년 6월 9일
제 7차 100일 기도	2011년 6월 10일	~	2011년 9월 17일
제 8차 100일 기도	2011년 9월 18일	~	2011년 12월 26일
제 9차 100일 기도	2011년 12월 27일	~	2012년 4월 4일
제10차 100일 기도	2012년 4월 5일	~	2012년 7월 13일

※ 기도동참금 : 100일 기도기준 가족당 10만원

일연·삼국유사 학술대회

일 시 : 2010년 2월26일 금요일 오후 4시~

장 소 : 동국대학교 다향관(세미나실)

주요행사 : 1. 일연·삼국유사 논문 공모 당선작 시상식 2. 당선 논문 발표 및 토론 3. 문화행사

보물 428호 보각국사정조지탑

복원불사 동참후원계좌 농협 757-01-182548 (예금주 : 조계종 인각사)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612번지 사찰순례 및 유적답사 Tel. 054)383-1161 Fax.054)383-3756